'보헤미안 랩소디'의 흥행에 이어 음악영화들이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베를린 필하모닉 갈라 프롬 베를린' 공연 모습(왼쪽)과 다큐 '콜드플레이: 헤드 풀 오브 드림스'.

음악회는 극장서 봐도 제맛이죠

빈 필·베를린 필 신년음악회 1월 1·3일 메가박스 충장점 중계
록밴드 '콜드플레이'·이차크 펄만 다큐 영화도 잇따라 개봉

국내 관객 800만명을 돌파한 '보헤미안 랩소디'의 흥행에 힘입어 극장가에 음악 열풍이 불고 있다. 극장의 풍부한 음향 설비와 탄탄한 영상미를 갖춘 음악 영화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음악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제맛'이라는 불문율이 만들어지고 있다.

◇빈 필·베를린 필 신년음악회

먼저 세계 최고의 클래식 연주회로 꼽히는 '2019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가 오는 1월1일 오후 7시 메가박스 광주충장로점 등에서 2시간 30분 동안 생중계된다.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수석 지휘자이자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의 예술 감독인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봉을 잡았다. 빈 필 신년음악회는 요한 슈트라우스 일가의 생동감 있고 향수 어린 레퍼토리를 선사하며 오랜 기간 전통으로 자리 잡은 행사다. 피날레는 신년음악회 '단골 손님'인 '라데츠키 행진곡'이 장식한다. 관람료 3만원.

이어 같은 달 3일에는 '베를린 필하모닉 갈라 프롬 베를린'이 메가박스 광주충장로점에서 지연 중계(오후 8시)되며 바통을 이어받는다. 베를린 필하모니아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연주회는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자로서 베를린 필 앞에 선지 5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모차르트의 '대관식'과 라벨의 '볼레로'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관람료 3만원.

또 9일 오후 8시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는 '예술의 전당 신년음악회'를 생중계한다. 선착순 100명 무료 관람. 예약 062-670-7934. 여자경이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과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이 협연하며 베이스 전승현과 국립합창단 등이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을 무대에 올린다.

◇록 밴드·콩쿠르 다룬 다큐 개봉

이달 28일 메가박스 광주충장로점 등에서 개봉되는 '콜드플레이: 헤드 풀 오브 드림스'는 콜드플레이의 초창기부터 세계적 스타가 된 지금까지 20년의 여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오아시스'를 다룬 다큐 영화 '슈퍼소닉'(2016)을 연출한 매트 화이트 크로스가 메가폰을 잡았다. 여태껏 공개된 적 없던 콜드플레이의 자료들과 '헤드 풀 오브 드림스' 세계 투어의 생생한 공연 실황과 무대 뒷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앞서 20일에는 그래미상 15회 수상에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차크 펄만의 예술 세계를 다룬 '이차크의 행복한 바이올린'이 광주극장 등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스라엘 작은 동네에 태어나 세계 유수의 무대에 오르기까지 육체적 한계마저 극복한 이차크 펄만의 음악 선물이 펼쳐진다.

1월24일 개봉하는 영화 '파이널리스트'는 세계 3대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에 참가한 12명의 결승 진출자들의 우아한 경쟁 스토리를 담은 클래식 다큐멘터리다. 한국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이지윤, 김봄소리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몸종의 시선으로 본 허난설헌

광주 출신 이진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펴내

허난설헌은 조선 최고의 여성시인이다.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홀연히 세상을 떠난 그녀는 자신의 시를 모두 불태워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올해는 허난설헌 탄생 455주년이 되는 해다. 또한 올해는 공교롭게도 그녀가 사랑했던 동생 허균이 역적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400주년이 된다. 허난설헌을 다룬 장편소설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광주 출신 소설가 이진이 펴낸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허난설헌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을 그의 몸종의 시선으로 새롭게 그려낸다. 당대 조선의 몸종이 처한 약자, 소수자,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허난설헌의 시와 생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설은 동생 허균이 누이의 유언과 달리 후세에 글을 전하고자 베껴놓았거나 외우고 있던 시편들을 모아 '난설헌집'을 엮은 데서 전개된다. 시집은 명나라에서 유명세를 타 중간(重刊)돼 팔려나가고 일본에서도 간행돼 인기를 얻는다. 허난설헌은 조선 최초로 한류 바람을 일으킨 장본인이 된 것이다.

여인들의 내밀한 정서를 솔직하게 노래한 그의 시를 조선의 문인들은 방탕하다는 이유로 폄하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인기를 얻게 되면서 그의 유명세가 역수입된다. 여성적인 감수성뿐 아니라 당대 하층민의 삶과 애환을 그린 점에서 공감을 받은 때문이다.

작품에서 허난설헌은 시를 쓰는 이유를 묻는 종에게 "재미있으니까!"라고 답한다. 인간의 예술적 욕망과 예술행위에 관한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다. 그녀에게 시는 숨 막히는 날들을 견뎌내는 하나의 탈출구이자 쉼이었다.

추천사를 쓴 유금호 소설가는 "시가, 소설이 어떤 특정한 능력의 산물이 아니라 삶 자체의 드러냄이자 표현이라는 걸 느꼈으면 한다"고 평한다.

한편 이 작가는 전남대 생물학과를 졸업했으며 일간지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지금까지 소설집 '창', '알레그로마에스토소', '꽁지를 위한 방법서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랑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김윤미 첫 시집 '바람 우표 서신' 펴내

지난 2017년 '미래시학'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김윤미 시인이 첫 시집 '바람 우표 서신'(우리글)을 펴냈다.

이번 시집에는 사랑에 관한 감정을 절망과 눈물, 연민과 희망의 언어로 육화시킨 시 60편이 실려 있다. 특히 상처로 가득한 지난한 사랑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는 시편들이 눈길을 끈다. 그 대상은 아버지나 자식 같은 가족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사람간에 발생하는 상처 혹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뼈아픈 통증이기도 하다.

시인은 사랑에 가닿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지만 결코 아름답거나 행복하지 않다. 자신과 세계 사이의 거리를 절망적인 언어로 그려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억의 새장 속에 갇혀 사는 사람"('취생몽사-영화 '동사서독'')처럼 살았고, "바람 매서운 시간"('빗소리')을 속절없이 보내는 삶을 살았다. 시인에게 사랑은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이었으며 금기의 자리에 고여 있던 슬픔이었는지도 모른다. 김석준 평론가는 시집 해설에서 "시인은 '첫'의 애절하고 숭고한 감정을 차근차근 정화 승화시켜 가고 있다. 자기에게 충실한 감정의 언어와 대면하며, 자기에게 봉헌하는 문자의 제의를 펼쳐내고 있다"며 그의 시세계를 설명했다.

시인에게 사랑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것은 주관적인 삶의 영역이겠으나 "날개가 없는 나는 자유롭지 않다"('통증의 습관')거나 "몇 날 며칠 토해내듯 목 놓아"('마음 몸살') 울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이, 우리 삶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한편 김윤미 시인은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2017년 '미래시학' 여름호에 시 '소생의 시간' 등으로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M 파트너스 데이

18~19일 문화전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도약과 발전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가 '2018 ACM 파트너스 데이'를 18~19일 ACC 문화창조원 복합4관에서 개최한다.

'ACM(Asia Culture Market) 파트너스 데이'는 지역과 도시의 경계를 넘어 아시아문화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공유와 연계, 협력을 통해 창의적이며 실험적인 문화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이다.

먼저, 첫 날은 오후 1시부터 마켓운영, 피칭, 쇼케이스가 진행된다. 이어 오후 다시 35분부터 기성 및 신진 웹툰 작가 발굴 프로젝트가 열리며 오후 7시에는 네트워크 파티가 예정돼 있다.

둘째 날에는 오전 11시에 ACC숲에서 ACM창조적 파트너십 결성식이 열린다.

오후 1시부터는 융복합 문화콘텐츠 피칭, 융복합 문화공연이 열린다. 문의 062-601-4057.

/박성천 기자 skypark@

방대진 목소리로 듣는 뒤파르크의 가곡

20일 광주 금호아트홀

프랑스의 작곡가 앙리 뒤파르크의 가곡들을 바리톤 방대진〈사진〉의 목소리로 듣는다.

'바리톤 방대진 독창회'가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서울대 성악과를 실기 수석 졸업하고 이태리 비첸짜 국립음악원 등에서 공부한 방대진은 프랑스 '아주리알르 오페라 프라이즈'와 이탈리아 '카프리올로 국제성악콩쿠르' 등에서 우승을 거뒀다. 프랑스 파리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운명의 힘', '서부의 아가씨', '나비 부인' 등에 출연한 그는 현재 전남대 사범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세자르 프랑크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뒤파르크(1848~1933)는 30대에 작품 활동을 끝내고 85세로 죽기 전까지 외진 곳에서 두문불출했다. 이날 무대에서는 그가 남긴 '슬픈 노래', '여행에의 초대', '엘레지' 등 14곡의 가곡을 무대에 올린다. 프랑스발 모뷔에 도립예술음악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다미앙 필립이 피아노 반주를 맡았다. 전석 1만원. 문의 02-532-487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제4회 중딩영화제 개최 20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청소년의 톡톡 튀는 영상물을 만나는 '2018 중딩영화제'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구 풍암동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작을 접수하는 '중딩영화제'는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주최로 올해 4회째 열리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는 지난해보다 참가 권역이 확대돼 서울·경기·경북·충청권 등 15개 권역에서 영상 202편, 라디오 16편 등 총 218편의 청소년 작품이 접수됐고 1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날 함께 열리는 시상식에서는 대상(방송통신위원장상 1팀), 최우수상(광주시교육감상 2팀) 등 총 4개 부문 15개 작품상이 주어진다.

시상식 1부에서는 '11회 전국청소년방송콘텐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남중 'ALL-in'팀이 축하공연으로 뮤직드라마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진행되는 '보이는 라디오 중딩톡톡'에서는 교사, 학생, 미디어강사가 미디어 교육에 대한 경험담을 나눈다. 영화제에서는 학교미디어교육 활동 영상도 상영된다. 문의 062-650-0332. /백희준 기자 bhj@